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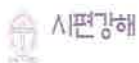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근심하지 말라

(시편 37:12-40)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땅을 차지하고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땅을 소유할 뿐 아니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땅의 권리를 즐기려면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땅을 차지해도 그 땅에 매일 전쟁이 있다면 화평을 즐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단칸방이라도 내 집을 갖기 원합니다. 내 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모체는 시편 37편입니다. 37:11절에서 온유한 자는 위를 보고, 앞을 보고 살라고 합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심지어는 자신에 대해서도 눈을 감되 오직 하나님께로만 눈을 뜨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강에서는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것입니다(7절). 수학자요 철학자인 Braise Pascal은 그의 대표적 저서인 명상록에서 “자기 방에서 조용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잘못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악인이 행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악한 자의 행통은 영원하지 않고 의인의 고난은 짧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8절). 분을 그치고 침묵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며 온유한 사람입니다. 분이나 노를 품거나 발산하다보면 자칫 하나님께 대항하게 됩니다.

### 1. 앞을 보라

악인이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행통하게 되는 것은 성경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 ①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의 운명은 반영하는 것 같이 보이나 풀과 같이 시들고 베임을 받을 것입니다. 투기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이 잘된다고 해서 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② 성실함으로 음식을 삼아야 합니다. 의인이 소유해야 할 중요한 성품은 성실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바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 ③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정도는 그가 오래 참는지, 않는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 ④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데 대해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민 12:3)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 2. 온유한 자는 왜 복을 받는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11절). 다윈의 약육강식, 적자생존 법칙에 의하면 세상은 강자만 살아남아야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훨씬 많고, 짐승의 세계에서

도 맹수들 보다는 작은 짐승들이 훨씬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원리입니다.

온유한 자는 헬라어로 ‘푸라우스’라고 읽으며, 극단에서 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합니다. 이것은 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푸라우스’의 형용사형은 ‘푸라우테스’인데 이것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무지하고 연약한 것을 알고 배우는 자세를 갖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충성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여 죄를 지음으로 모든 권세를 박탈당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가나안, 곧 천국을 말합니다.

### 3. 온유한 자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땅을 차지하고 화평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은 땅을 소유할 뿐 아니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땅의 권리를 즐기려면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땅을 차지해도 그 땅에 매일 전쟁이 있다면 화평을 즐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단칸방이라도 내 집을 갖기 원합니다. 내 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유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소유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은 더 큰 것을 소유하기 위해 마음에 만족함이 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불평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자족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16절).

의인은 온유한 자를 말합니다. 의인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악인보다 더 즐겁게 사는 비법을 가지게 됩니다.

25절은 다윗의 간증으로 그는 자기 평생에 의인이 주림을 당하거나 그들 후손이 결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전체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길게 보면 의인은 일어날 것이나 악인은 넘어질 것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불러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의인의 삶을 살므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우리교회가 백만인 전도 운동 시범교회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91회 총회를 통해, 일이 있기까지 열심히 영혼구원을 위해 애쓰신 성도 1907년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00만인 전도운동>을 시행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전도와 부흥의 열기를 전국교회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평소 전도와 부흥에 열심있는 교회들을 "100만인 전도운동 시범교회"로 선정키로 하였는데, 금번에 우리 서울교회가 총회로부터 시범교회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아울러, 총회의 요청에 따라 우리 서울교회는 교회 내에 "서울교회 백만인전도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전국교회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참여가 있기를 소원한다.

## 수요2부 피아니스트 추가임명

우리교회는 수요2부 피아니스트 김현주 선생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여 이신원 선생을 추가로 임명하기로 하였다.

### 이신원 선생 약력(1969년생)

- 서울예고, 한양대 졸업
- 독일 Stuttgart Musik Hochschule "Musik Lehrer" Diploma
- 독일 Stuttgart Musik Hochschule "ML"(Diploma), "KA"(전문연주자 과정) Konzert Examen(Solisten Klasse) 최고 전문 연주자 과정 최우수 졸업
- Baden-Baden Philharmonie, Hochschule Studio Orchestra 협연
- Trias, Gemini Trio 단원으로 활동 중
- 독일 Stuttgart 남부한인교회 봉사
- 한양대 경원대 서울기독교대 출강

**1. 주 제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눅 16:15)

**2. 일 시 :** 2007.2.21 - 5.20 (사순절, 오순절)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 예정)

**3. 표 어 :** 1) 하나님을 사랑하자  
2)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3) 복음을 전파하자

**4. 목 표 :** 1)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와 각성을 지향  
2) 1907년 대부흥운동에 나타난 부흥의 열기를 계승  
3) 지속적인 교회 부흥을 위한 의지 결집  
4) 민족복음화에 대한 의지를 온 민족을 향해 표출

## <비전2020운동 후원자 명단>

군인 한 사람 수세를 위한 필요경비 3000원을 1구좌(3구좌:10000원)로 하여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강석조/강승용/강요섭/강요혜/강윤숙/고영순/구귀순/김경희/김광신/김광욱/김광태/김대호/김명숙/김복순/김상철/김세재/김연욱/김영빈(배병이)/김영정/김영주/김영준/김영호/김우정/김재근/김종구/김종자/김태기/김한성/김행숙/노문환/노송성(이영옥)/박선정/박정섭/박정수(김경옥)/박정임/방계운/방호철/배준길/서경애/손재겸/신용식/신종건/신항범/안경옥/안미경/양득춘/양춘경(이인숙)/오유식/오형철/왕경래/원용범/유경희/유근중/윤운식/윤찬오/이강진/이경구/이경희/이관규/이광열/이근희(정복순)/이남성/이동권/이명홍/이민화/이부자/이상호/이영기/이영자/이운명/이중숙/이찬호/이태원/이훈/임상현/장기숙/장덕/장명순/장외남/장인원/전수자/전용택(곽숙)/정경월/정진모/정진연/조성엽/조순엽/조응식(유명석)/지혜영/최금봉/최금자/최난수/최혜인/하인선/한명/함은희/홍순복/홍승전/홍일성/황보주자/황선희

(다음주 계속)

## 2007 비전2020 후원자의 밤 개최

### 1월21일(주) 오후 6시 30분 801호

민족의 75%를 복음화 하기 위한 비전2020운동을 열리며 3사단과 6군단, 육군사관학교에서 참석할 예정인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07 비전2020 후원자의 밤을 개최한다. 비전2020운동 후원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성도여러분 2007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 장로일동

2007년 위원장에게 듣는다.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오정수 장로 (당회서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지난 한 해였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돌리기 위해 당회는 올 한 해 이전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할 것입니다.

## 성도가 하나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토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서울교회가 되기 위하여 당회는 모든 조직들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1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기관과 부서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오직 주님이 받으실 영광만을 생각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웃의 등대로서, 민족의 구원선으로 그리고 세상의 나침반이 되기를 소원하는 서울교회는 이제 이웃과 세상을 향해 복음의 열정을 불태우며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07년 새해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땀 흘리는 성도가 되어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히 바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준경 장로 (예배위원장)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이 가고 또 새 주일을 맞을 때처럼 자극도 결단도 없이 습관처럼 한 해를 맞이하고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배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가장 구별되어야 할터인데 아직도 우리는 자

## 예배는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거룩한 것

신의 형편과 계획과 시간에 맞추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에는 온 서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축복 받는 올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 찬양은 진실·사실·감동

김광신 장로 (Senior Pastor)



우리는 천국에 있습니다. 다른 목회 제이지만 찬양만은 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의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진실이어야 하고 감동이고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나 거짓이나 외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양이 계속되려면 오늘 여기서부터 진실 집해야 합니다. 못한다거나 힘들다거나 할 수 없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에 동참 리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심을 힘입어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열게 될 것입니다. 찬양대원으로 임명 모든 성도가 찬양의 행렬에 동참하기를

##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

윤찬오 장로 (전도위원장)



세상에 빛이 있어 아버지. 지난 날 어둠과 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랑으로 구원받은 하셨습니다. 오늘 백성, 빛의 자녀들 가지고 땅 끝까지

장로 은퇴하면서...

##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박두영 장로(1교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다귀 같고 죽은 개와 같은 나, 그럼에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절대적인 주 권으로 장로로 기쁨 부어 세우시고 은혜 가운데 은퇴를 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생각 할 때 만인이 있어도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신학자요 목회자이신 이종은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서울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당회원들로부터 받은 분에 넘치는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준 높은 성도들의 사랑에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인간이 만든 제도 하에서 은퇴도

중요하지만 을 벗는 은퇴 고 생각하니 그 벽간 감격 내 마지막 왔고, 떠날 도 사도 바울 길을 마치고 비하신 의의 받으며 달려

# 다시 서라!

## 이어야 원장)

찬양만 할 수 신앙행위는 절 하나님께 영광 돌 통로로 찬양을 야 하고 사실이 거기에 속임 천국에서의 찬 된 찬양만을 고 어렵다고 핑계 해야 합니다. 그 고 성령의 인도 수 있는 권능을 ! 자 뿐 아니라 소망합니다.

자삼으라' (마 28:19)고 위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두워져 못 보는 불쌍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2007년 한 해를 새생명 축제의 원년으로 삼아 주일은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사역에 우리 모두 뜻을 같이하여 전도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몸되신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사 6:8)탄식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여 주님의 발이 되고, 대언하는 나팔로 전도하고 또 전도 합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결코 앞서지 말고 매일 매일 순간순간 증인의 삶을 실천하여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전도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일꾼되는 다락방

### 임훈규 장로 (교구위원장)



2007년은 서울 교회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기도와 섬김으로 전도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일꾼 되는 다락방, 교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봉사하기를 즐거워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다락방,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다락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254개의 다락방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때에 참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구'가 됨으로 민족을 깨우는 서울교회 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는 날

라 하신 하나님  
망의 자식이었  
도 십자가의 사  
의 자녀가 되게  
님은 구원받은  
게 복음의 빛을  
르려 '가서 제

나님이 제정하신 마지막 육의 장막  
야말로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은퇴라  
나를 맞아주시 주님을 생각하면  
- 설레는 마음 견잡을 수 없습니다.  
수한이 75세라면 3년 밖에 남지 않  
각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나  
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믿음을 지켜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  
류관을 받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졌으며 나의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 부  
탁드립니다.

혹시 나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시  
험 든 분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관용의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과 목사님을 비롯  
한 당회원과 성도님께 진정 머리 숙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 교회규정에 음악감독직 추가키로

우리교회 당회는 지난 해 교회정책 협의회에서 결의한 '음악감독'의 기능과 역할을 정하여 서울교회 규정 3장 7조 12항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 <음악감독의 기능과 역할>

서울교회의 예배를 통해 드러지는 각종 찬양의 질적 수준을 함양하고 성도들의 찬양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며 불신사회에 기독교 문화를 통한 복음증거를 국내외적으로 돕는다. 서울교회의 세계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회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한다.

#### 1. 교회내 찬양

- 1) 목회자를 도와 예배 음악 전반에 관한 문제를 관장 감독한다.
- 2) 각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자의 선발, 교육, 자제를 지도 감독한다.
- 3) 찬양대원의 교육, 선발, 자질 향상에 관한 문제를 관장 감독한다.
- 4) 교회 내 특별한 음악순서가 필요할 시 이를 관장 감독한다.
- 5) 찬양예배를 명실 공히 찬양예배가 되도록 지도 감독한다.
- 6) 각 찬양대의 연습실 환경, 악기, 시설에 관한 문제들을 점검 감독한다.

#### 2.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

- 1) 만인의 언어인 음악을 통한 복음증거의 기회를 확대 감독한다.
- ① 음악감상반 ② 노래부르기반 ③ 여성합창반
- ④ 어린이합창반
- 2) 수준 높은 음악회를 준비하여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교회에 마음 문을 열게 하는 일을 관장한다.

- ① 화요정오 파이프오르간 연주회
- ② 사망자 대회 기간 중 가을 음악회
- ③ 교회초청 자선음악회

#### 3. 해외 활동

- 1) 담임목사 해외 집회 인도 시 '선교할찬단' 파송
- 2) 어린이 합창단 해외 순회공연
- 3) 외국 우수합창단 또는 음악인 초청

#### 4. 기타

서울교회를 통해 형성되는 교회문화를 한국교회 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에 접속시킨다.

### 2007농어촌100교회운동지원연방 (다음주 계속)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구좌
대구담노회	부동	석영자(목)	12-27,8다락방, 13교구 다락방장, 강석우, 강승음,서경애, 교역자회	1
	사촌	이필호(목)	관정철,유중숙, 김경태,김민태, 김광민,박민숙	1
	내곡	이상현(목)	김광태,최중희, 김권진,왕경애, 김금준,이현주	1
	백마	김명회(전)	김대호,남순덕, 김동진,박진주, 김명옥,오병호, 김복녀, 최학인	1
	후평	이영룡(전)	김송배, 김영빈,배병아, 김영주, 강영주,이해순, 김영호,박성금,	0.5
			김재근, 김계중,김유경	1
	신계	김계식(전)	김재배, 김중자,박진화, 김철호,한미경, 김해영, 김형성,최금숙	1
	목산	이정우(목)	김정숙, 김지삼,곽미숙	0.5
	달성소양	허금준(목)	노문환,장정화, 노송성,미영옥	1
	경안노회	시월	장택환(전)	도르가, 빌립, 안드레 루디아,
			2	
	목계	고영준(전)	오영배, 이상숙, 박경정	1
	금곡	조정원(전)	박영철, 방승희	1
			박태선,	0.5
두산	박미혜(전)	배정자, 새가족부		1
도진	김원택(목)	서상근,서범준, 신용식,김신영		1
		손맹근,송행희,		0.5
서미	전치숙(전)	신승건,김희진, 이바라함		1
이송천	이봉우(목)	안부선, 안홍희,전화진		1
오치	강석황(전)	박정수,김경옥		1
		오교식,김은순, 이지은		0.5
광은	민만기(목)	오정수, 오치열,허숙, 원용규,박이선		1
방주	심연자(전)	원용범,김영희, 유승순, 윤봉준,김명화		1
인금	권영근(전)	베드로		1
		외비		3
주영	하재민(목)	엘리아		1
		에스터		3
안흥	김성은(목)	윤화진,김유경, 은기정,김경숙		1
방하제일	최근상(목)	이호,이강인,허숙, 이남성,최영란		1

#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영향 그리고 그 현재적 의의(II)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의 뜻깊은 해인 2007년 새해가 밝았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영향, 그리고 그 현재적 의의」를 저자인 장신대 김인수 교수(역사신학)의 허락을 얻어, 2회에 걸쳐 발췌하여 소개한다.  
(편집부)

### III. 부흥운동이 끼친 영향

한국의 부흥운동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 1. 개인과 사회의 회개와 도덕성의 회복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 교인들에게 참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나, 부흥운동 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첫 단계로 통절한 참회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개인의 회개는 가정을 변화시켰고, 사회를 개조시키는 놀라운 변혁을 가져왔다.



▶ 길선주 목사

이로써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속한 사회는 격랑의 물결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갔다. 부흥의 물결은 다음 달 2월에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여러 학교로 확산되었고 심지어 초등학교생들까지도 부흥운동에 동참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 무엇보다 부흥운동을 통한 교인들의 회개 경험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정착하는 중대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평양대부흥운동이 지나고 나서 평양은 새로운 도시가 되었다. 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주일에는 불신자도 가게문을 열지 못할 만큼 변모한 도시가 되었다.

#### 2. 전도와 선교운동 및 교육기관의 확장

진정한 참회의 과정을 통과한 한국 교인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력투구하였는데, 이는 곧 교회성장으로 연결되어 1907년 한 해 동안 평양의 부흥운동 기간 중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넘었다. 이에 따라 장로교회는 약 34%, 감리교회는 무려 118%가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부흥운동에 따른 교회 성장은 기독교 학교

의 설립도 촉진하였다. 감리교회에서는 이화학당, 배재학당, 장로교에서는 경신학교, 정신학교, 승실학교 등 많은 학교가 세워진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해인 1906년에는 208개 학교가 있었지만 1907년에는 무려 130개 이상의 학교가 개교되었다. 이들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장차 일어날 항일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 3. 인권의 신장

부흥운동은 한국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진수에 접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그 생활을 전환하였다. 삶의 전환의 일환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현상은 전통문화의 변혁으로 이어졌다. 이는 기존의 사회신분제도가 붕괴되고, 인간 차별의 문화가 서서히 도태되어 갔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다. 남존여비 사상이 무너지고 노비가 해방되는 일이 일어났다. 수천 년 동안 천민으로 박해받던 백성들을 동일한 인간으로 선언하였고, 갖바치와 술장수, 광대와 무당도 더 이상 천민 취급을 받지 않고 대등한 교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도 모두 부흥운동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나타난 두드러진 사회 현상 중 하나였다.

#### 4. 연합운동의 활성화

한국교회는 1907년 대부흥운동을 전후하여 복음의 정신에 따라 하나 되는 일에 치중하였다. 비록 한국에서 하나의 개신교회를 세우려는 시도는 정사되지 못했지만, 성서공회, 대한성서사회 설립과, 잡지, 신문, 찬송가 발행의 합동이 이루어져 연합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 연합은 또한 교육기관들의 연합으로도 이어졌다.

#### 5. 애국운동

기독교 신앙과 애국은 깊게 연결되어 있다. 부흥운동의 기수였던 길선주의 나라사랑의 정신은 직접 독립운동에 참가함으로써 나타났는데, 그는 3.1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중 목사가 13명이나 되었다. 일제의 앞잡이 스티븐슨을 격살한 장인환 의사, 매국노 이완용을 습격한 이재명 의사 등이 모두 기독교 신자였



김인수 교수(장신대)

다. 일본에 진 빛을 갈자는 국채보상운동, 전국의 여성들이 반지를 빼어 바쳐 국채를 갚자고 하는 팔환회(脫環會) 운동,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물산장려운동 등은 3.1독립운동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나라사랑 정신을 표출했던 교회와 교인들이 주도한 애국운동이었다. 이 모든 운동의 저변에는 부흥운동에서 고취된 애국사상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 IV. 결론

기독교 2천 년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이며, 선교에 투신한 사람들은 대개 성령의 사람들이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은 부흥운동에서 성령을 받은 이들이었고, 이들을 통한 부흥운동은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통해 한국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부흥운동은 하디를 중심한 선교사들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이 운동은 성령의 역사였다. 한국교회는 부흥운동을 통하여 형식적인 교인들이 철저한 회개를 하였고, 이 회개는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정화시켰다. 부흥운동을 통하여 교회와 학교가 크게 성장하였고, 전도와 선교사역이 활성화되었으며, 버림받은 사람들의 인권이 신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갈라졌던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는 에큐메니즘의 정신이 실현되었으며 이 정신은 상호 이해의 틀을 마련해 주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2007년 벽두에 한국교회는 교회와 민족을 위해 새로운 성령운동의 불을 다시 지필 때가 되었다. 이는 교회가 새 시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절경이기 때문이다. 이 길로 들어서는 지름길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회를 하는 일이다.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활로가 있다.



▶ 선교사들과 한국인사역자

청지기 수련회를 마치고...

# 위대한 꿈을 꾸는 청지기들...

## 중직자의 사명과 자세

### 최영진 집사(3교구)



2007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날들을 뒤 돌아보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전심으로 충성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중직자의 자리는 주님의 종으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며 섬기는 자리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다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여정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쉽 없이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의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 자신보다 교회의 공동체를 우선하는 삶입니다. 중직자는 말과 혀로만이 아닌 삶으로 실천하고, 자신이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증인의 삶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우리 서울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에 나 자신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교회의 유익과 어려움에 발 벗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며, 교회의 많은 기관과 교구를 돌보고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섬김과 나눔의 중직자로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 교회의 얼굴로...

### 채경의 권사(12교구)



교회의 문을 여는 순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봉사자인 안내위원은 교회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예배드리러 오시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존경하는 심정으로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큼니다.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에 중요도를 따질 수 없겠지만 예배를 돕는 섬김위원들 역시 가장 영광스러운 직임이라는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 다시 한 번 예배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다짐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청지기 수련회를 통해 가졌습니다.

행여 지난 한 해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적은 없었는지, 실수해서 예배의 흐름이 방해되는 행동을 한 적은 없었는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내위원이라는 귀한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섬김위원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이번 주일도 환한 미소와 함께 정성의 마음을 담아 빨간 유니폼의 단추를 채우렵니다.

##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 인분선권사(12교구)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라 함이니라(사43:21)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07년 청지기 수련회로 다시 한번 찬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최고의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화의 기독교화로 찬양에 큰 비중을 둔 서울교회 찬양대는 교회 음악이 더욱 발전되고 우리의 생활이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찬양대원들은 먼저 소명의식을 갖고 말씀으로 성숙되고 구별된 마음과 단정한 자세로 찬양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성실과 정성을 다해 구원의 감격으로 최선의, 최고의 찬양을 준비하여 꼭조 있는 기도로 온전한 찬양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와 기쁨으로 영적 찬양을 드러내 마음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서울교회 온 찬양대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2007년 섬김위원 요람 발간

-서점에서 판매-

2007년 섬김위원 요람이 발간되었다. 2007년 섬김위원 요람은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권당 5,000원이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5일(월) 강남교구협의회, 연세 신학인의 밤에서 설교한다. 18일(목) 북한연구원동 공동회장, 서울여대 이사회, 19일(금) 한국기독교 학술원 임원회에 각각 참여한다.

■ 이사 : 김재중 집사 이신애 집사 가정(14교구) 일원2동 현대@ 30-503 T.3412-4952

■ 필그림 산우회 2007년 회장으로 장인원 집사 선출

■ 주간 식당 봉사 : 루디아전도회(1, 14)

■ 금주의 식사 : 이관규 장로 이순영 권사 가정 (자녀 학업 마침을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전도학교 21기 개강 안내

현재 진행 중인 20기 훈련은 1월 28일 수료식을 갖는다. 21기에는 수요야간반을 신설하였다.

### < 전도학교 21기 훈련 일정 안내 >

- 오리엔테이션 : 2007년 2월 4일 오후 2시(802호)
- 화요일 개강 : 2월 6일 오전 10시 (603호)
- 수요반 개강 : 2월 7일 오후 8시 (603호)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만인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도록
2. 일천명 성경통독대열에 나도 참여하도록
3. 교회예산 60% 이상 남을 위해 쓸 수 있도록
4.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국·애족하도록

## 교회외시는 길

